



5월 지육시세는 3,450원/kg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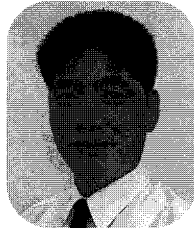
한번 오른 돈가는 기세 좋게 계속 올라 주간 평균 지육가격이 3,500원을 돌파하여 사상 최고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작년 연말에 미국의 광우병과 조류 독감으로 늘어난 돼지고기 소비량은 매우 높은 가격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해 주어 이러한 고돈가가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초에 다급하게 계약된 수입물량이 3월말부터 국내시장에 유통되면서 국내 산지 돼지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산지 돼지가격의 조정은 국내 4월초 연휴와 국회의원 선거일 등 작업일수 감소와 출하물량의 감소, 국내 백화점의 판촉 세일기간 등이 겹치고 소비량이 증가되면서 돼지가격은 초강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1월과 3월의 사료가격 인상으로 생산비가 10% 이상 증가되면서 국내 양돈농가의 수익성 향상 정도는 돼지가격 인상률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금년 3월에 조사된 돼지 사육 통계를 보면 금년 상반기 내내 출하두수가 전년도 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배합사료 생산량 통계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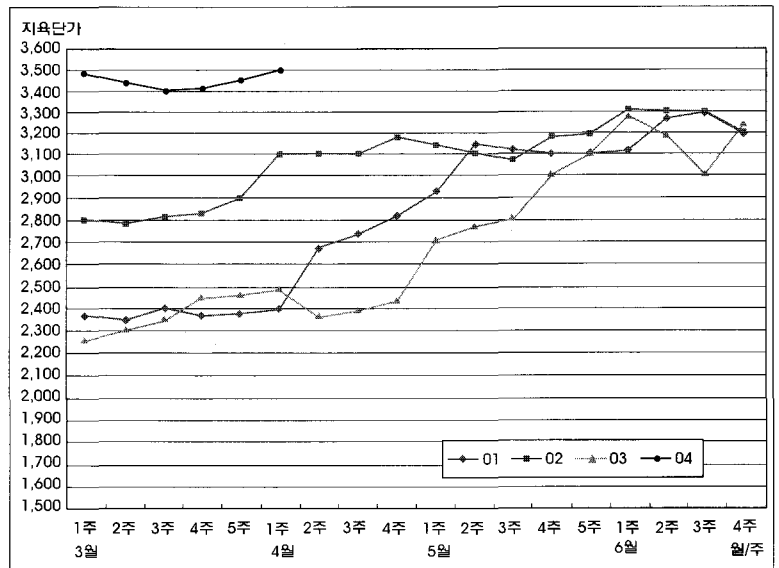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미음모든계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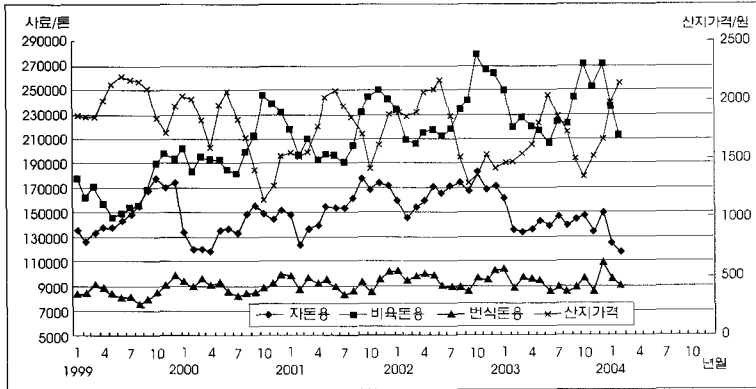
금년 1월과 2월의 자돈 사료 생산량이 242,433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대비하여 약 18% 감소하여 출하두수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금년 1월 사료값 인상에 따른 전년 12월의 가수요 발생과 금년 1월의 사료 소비량 감소를 감안해 보면 대략 10% 정도의 사료 생산량 순감이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출하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비육돈 사료 생산량은 금년 1월과 2월의 누계 추세가 450,06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약 4%가 줄어들었으며, 모든 사료 생산량도 4%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출하물량이 약 10% 정도의 감소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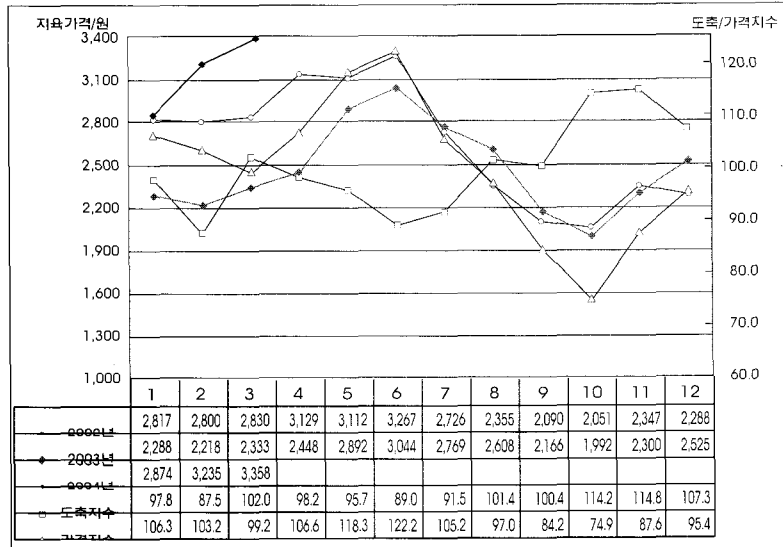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4개년간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 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의 큰 폭의 증가는 결국 돼지 공급량을 늘려 돼지가격은 점차로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돼지고기 수입량을 보면 2004년 1월과 2월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9,99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증가하였고, 2001년 이후 최대의 수입량을 기록하고 있고 환율은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등 수입 환경을 좋게 유지하고 있다.

매년 5월의 돼지고기 출하물량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평균 보다 5% 정도 감소하여 돼지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미 오를 대로 올라간 돈가가 매우 부담스러운 추세선을 보이고 있어 돼지가

다. 이러한 이유는 전년 4월부터 돈열질병과 하절기 번식성적 감소 및 모든 사육두수 감소, 이유 자돈의 만성 호흡기 질병 등의 발생 등의 영향으로 비육돈 출하두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개월간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4.5% 감소되어 도축두수가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급물량의 감소와 광우병과 조류 독감 여파로 늘어난 돼지고기 소비량이 겹쳐지면서 돼지가격의 강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돼지가격의 강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격의 급등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004년 3월의 가축 통계 조사를 보면 5월 출하예정 물량인 2~4개월령 사육두수는 2,883천두로서 전분기 보다 35% 감소하여 106천두가 줄어들어 5월의 출하예상 물량은 전분기, 전년보다 줄어들어 돼지가격은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2004년 5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상황은 출하물량 5~10% 감소와 소비량 5~10% 증가가 예상되어 지육 단가는 3,450원대의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